

2024 년도 『CHRB 핵심 UNGP 지표』 평가 결과 보고서

2024 년 4 월



(사)휴먼아시아 아시아 기업과 인권센터

목차

인사 말씀.....	2
평가 배경 및 취지.....	3
평가 결과 요약.....	4
『CHRB 핵심 UNGP 지표』 평가 방법 소개.....	8
평가 과정.....	10
평가 결과 분석.....	11
총점 분석.....	11
항목별 점수 분석: A. 거버넌스 및 정책 약속.....	12
항목별 점수 분석: B. 인권 존중 내재화와 인권실사.....	13
항목별 점수 분석: C. 구제 및 고충처리 장치.....	15
평가 대상 12 개사 세부항목 평균 점수 분석.....	17
업종별 2022&2023 년 결과와 비교 분석: 『CHRB 핵심 UNGP 지표』 기준.....	19
동일 국내 기업 2022&2023 년 결과와 비교 분석.....	24
맺음말.....	25

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세계인권선언문 29조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진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개인적인 이익을 넘어서 공동체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이윤추구의 활동을 보장해 주었지만, 이것이 기업의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기후위기와 급격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인류 공동의 문제로서 모두의 협력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에 이르렀습니다. 기업도 인류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제사회는 21세기 들어서 점차로 이러한 기업의 책임성에 대한 관심을 늘려왔고, 그와 관련된 규범을 만들어 왔습니다. 유엔에서는 2011년에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만들었고, 관련 규범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EU를 비롯한 많은 서구 국가들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규범에 따른 인권·환경의 법제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에 관한 논의는 유럽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환경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기업들의 인권경영 현황을 진단하여 한국경제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산업 성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활동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인권·환경은 여유 있을 때 생각해보는 변수가 아니라 사회에서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상수입니다. 이번 평가를 시발점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보다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업의 경쟁력, 한국의 경쟁력, 더 나아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휴먼아시아 대표

UN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부위원장/ 고려대학교 국제대학 교수

서창록

2. 평가 배경 및 취지

『유엔 기업과 인권이행 지침 (UNGPs)』을 바탕으로 한 공급망 실사법이 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의 핵심 개념으로 인권과 환경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의 법제화가 현실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사람과 환경의 가치에 기반한 책임경영은 기업과 기관의 지속가능한 사업운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토대이자 최소한의 필수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 기업의 경우 이를 제대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국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해관계자 참여기반의 실사(Due Diligence)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비정부기구(NGO)인 휴먼아시아의 아시아 기업과 인권센터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월드 벤치마킹 얼라이언스(World Benchmarking Alliance: 이하 WBA)의 협력 파트너 기관으로서 국내 산업별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CHRB 핵심 UNGP 지표』에 기반한 평가를 최초로 실시하였습니다. 본 센터는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의 실사 이행 현황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개선 방향을 찾아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기업들의 인권친화적 경영체계 구축과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국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가 이를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휴먼아시아 아시아 기업과 인권센터 일동

3. 평가 결과 요약

휴먼아시아의 아시아 기업과 인권센터 연구팀은 이번 평가 대상으로 국내 주요기업 12 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2022 년도 기준 자산 상위 10 대 그룹의 주요 계열사와 매출액 상위 10 개 기업 중 업종을 고려하여 10 개사를, 공기업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현황』 기준 수입 및 지출 상위 2 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본 평가는 『A. 거버넌스 및 정책 약속』, 『B. 인권 존중의 내재화 및 인권실사』 그리고 『C. 구제 및 고충처리 장치』 3 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습니다.

평가 대상 12 개사 중 총점(24 점 기준) 상위 4 개사는 삼성전자(18.5 점), 한국가스공사(15 점), SK 하이닉스(12.5 점), SK 에너지(12.5 점)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상위 그룹 내 기업들 간에도 점수 차이가 다소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B. 인권 존중 내재화와 인권실사』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업들이 상위 그룹을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또는 유사 업종 내 기업들 간에도 총점의 편차가 큰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 ICT: 삼성전자(18.5 점), SK 하이닉스(12.5 점), LG 전자(5.5 점)
- 금융: 삼성생명(10 점), 메리츠증권(4 점)
- 채굴 및 에너지 산업: 한국가스공사(15 점), SK 에너지(12.5 점), 포스코(10 점), 한국전력공사(10 점), GS 칼텍스(8 점)
- 자동차: 현대자동차(8.5 점)
- 조선: 현대중공업(10 점)

평가 대상 기업 12 개사 중 8 개사가 24 점 만점 기준 12 점 이하로 지표 달성율이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다수 기업이 아직 인권실사를 비롯한 인권경영 체계구축과 정책마련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A. 거버넌스 및 정책약속』의 경우 대부분의 평가 대상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영역이었습니다. 총점 6 점에 평균 4 점으로 66.67%의 달성율을 보였습니다. 이 영역의 세부 3 개 항목 중 『A.1.4: 구제 약속』이 2 점 만점에 평균 0.54 점 (달성율 27.08%)로 타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인권경영의 선언적 약속은 있었으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세부정책 등에 대한 명시는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B. 인권 존중 내재화와 인권실사』 영역은 이번 평가의 세 가지 평가 영역 중 가장 점수가 낮은 영역으로 평가 대상 12 개사 중 11 개사가 12 점 만점 기준 5 점대 이하의 점수를 나타냈으며 12 개사 전체 평균은 3.29 점으로 27.43%의 달성율에 그쳤습니다.

평가 대상 기업들이 『B.2.1: 인권 위험 및 영향 식별』 47.92%과 『B.2.2: 인권 위험 및 영향 평가』 45.83%의 달성율을 보인 반면, 특히 『B.2.3: 인권 위험 및 영향 평가 통합 및 조치』, 『B.2.4: 인권 위험 및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효과 추적』, 『B.2.5: 인권 영향에 대한 소통』의 명시에 관한 점수는 각각 2 점 만점에 평균 0.5 점, 0.17 점, 0.08 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평가 대상 기업 중 절반 정도가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고는 있지만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인권 위험 및 영향을 식별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책적 조치와 그 조치의 효과 추적 그리고 인권 영향에 대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절차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C. 구제와 고충처리 장치』 영역은 6 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 대상 12 개사 중 5 개사가 4 점대의 점수를 보인 반면, 나머지 7 개사는 2 점대의 점수를 보여 타 영역과 달리 상·하위 두 그룹으로 양분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12 개사 전체 평균은 3.08 점으로 51.39%의 달성율을 보였습니다.

이 영역의 경우 『C.1: 노동자를 위한 고충처리 장치』 항목이 평균 1.33 점으로 66.67%의 달성율을 보인 반면, 『C.2: 외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한 고충처리 장치』가 평균 0.92 점으로 45.83%, 『C.7: 부정적 영향의 구제』가 평균 0.83 점 41.67%의 달성율에 그쳐 평가 대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구제 장치와 관련하여 모든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접근성과 공급업체의 고충처리 장치 접근성에 관한 명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아직 다수의 기업이 구제 절차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거나 합의된 구제책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절차, 유사한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및 절차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업종별 2022&2023년 CHRБ 평가와 2024년 국내기업의 비교분석』 결과는 이번 평가에서 또 하나 눈 여겨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2022 년과 2023 년 CHRБ 평가』 결과 중 『ICT, 자동차, 채굴산업』 업종에서 『CHRБ 핵심 UNGP 지표』 해당 결과만 추출한 뒤 총점 상위 10 개사, 상위 20 개사, 업종별 전체 평가 대상 기업 총점 평균을 산출하여 『2024 년도 국내 기업 평가』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평가의 시차와 평가 범주의 차이에 따른 공시된 절차 자료의 변동으로 인해 동일한 시점에 일시에 진행된 평가 결과에 비해 정확한 상호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런 한계점을 감안하더라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의 핵심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한 『CHRБ 핵심 UNGP 지표』를 기준으로 국내 기업의 인권경영 현황을 글로벌 기업들의 인권경영 현황과 비교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분석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CT 업종을 일례로 살펴보면, 이번 평가 대상 12개 기업 중 이 업종에 속한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전자 3 개사였습니다. 그 중 2022 년 CHRБ 평가 결과를 토대로한 ICT 업종 『CHRБ 핵심 UNGP 지표』 총점 기준 상위 10 개사 평균인 12.8 점보다 상위에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18.5 점) 1 개사, 상위 10 개사와 상위 20 개사의 총점 평균인 12.8 점과 10.55 점 사이에

있는 기업이 SK 하이닉스(12.5 점) 1 개사였습니다. 2022 년 CHR B 평가 ICT 업종 대상 기업은 총 43 개사였고 총점 평균은 7.31 점이었는데 평가 대상 국내 기업 중 LG 전자(5.5 점)는 업종 평균 보다 아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전자가 ICT 업종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들이라는 측면에서 세 기업간의 점수 편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은 그 함의가 크다가 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경우 지난 수년간 WBA 에서 진행한 CHR B 평가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어 국제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인권경영 평가를 받으면서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한 진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에 비해 모니터링 대상에 속하지 않았던 LG 전자의 경우 『CHR B 핵심 UNGP 지표』 총점 기준으로 2022 년 CHR B 평가 ICT 업종 대상 기업 총 43 개사의 총점 평균인 7.31 점보다 낮은 5.5 점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특히 『B. 인권 존중 내재화와 인권실사』 영역에서 0 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공급망 실사법이 확산하고 있는 최근 국제 동향을 고려할 때 다른 국내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 참고:

- 2022 년 CHR B 평가 결과를 토대로한 ICT 업종 『CHR B 핵심 UNGP 지표』 총점 기준 상위 10 개사: Hewlett Packard Enterprise, Corning, Samsung Electronics, Microsoft, HP, Dell, Canon, Cisco, Ericsson, Western Digital

- 2022 년 CHR B 평가 결과를 토대로한 ICT 업종 『CHR B 핵심 UNGP 지표』 총점 기준 상위 20 개사: 상위 10 개사 + TSMC, Intel, Walmart, Qualcomm, Murata Manufacturing, Apple, Sony, Hitachi, Nokia, NXP Semiconductors,

- 2022 년 CHR B 평가 대상 ICT 업종 43 개사

상위 20 개사 + Tokyo Electron, Nvidia, TE Connectivity, Panasonic Corporation, SK Hynix, Infineon Technologies AG, Applied Materials, Keyence Corporation, Amphenol, Nintendo, Skyworks Solutions, Kyocera Corporation, Hon Hai Precision Industry Co., Ltd. (Foxconn), Amazon, Broadcom, ASML, Lam Research, Micron Technology, Microchip Technology, BOE Technology Group, Texas Instruments, Largan Precision, Analog Devices

■ 『동일 국내 기업 2022&2023 년 및 2024 년 결과 비교분석』은 2022 년과 2023 년 CHR B 평가 대상 기업 중, 이번 2024 년도 평가에서도 평가 대상이 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포스코 4 개사의 『CHR B 핵심 UNGP 지표』 기준 결과만을 추출한 뒤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4 개사 모두 『CHR B 핵심 UNGP 지표』를 기준으로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삼성전자(13 점→18.5 점)와 SK 하이닉스(4.5 점→12.5 점)의 경우 CHR B 평가 이후

인권경영 보고서 발간,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해당 절차에 대한 공시 강화, 인권원칙제정, 인권경영가이드라인의 제정 등을 통해 절차적 보완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산출 결과의 변화는 CHRB 와 같은 국제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기업과 인권 진단 지표의 적용이 초연결망에 의해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인권경영 현황에 대한 글로벌 기업간 상호 비교 분석을 통해 인권경영의 변화와 발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함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평가가 공시된 자료를 토대로 절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고, 일반적으로 공개된 시스템과 절차가 실제 정책 이행 및 성과에 선행한다는 측면에서 이 영역의 평가 결과는 인권경영의 핵심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는 인권실사 및 인권정책의 내재화를 위한 체계적인 절차와 정책적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함의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본 평가의 대상기업들이 매출 규모 면에서 한국 경제와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인 만큼, 이들 기업들보다 매출 순위가 낮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경우 인권 존중의 내재화 및 인권실사 준비가 더욱 취약할 것으로 유추됩니다. 따라서 인권과 환경을 핵심적인 두 축으로 하는 공급망 실사법의 국제적 확산을 고려할 때 산업계와 정부의 인식전환과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4. 『CHRB 핵심 UNGP 지표』 평가 방법 소개

월드 벤치마킹 얼라이언스(WBA)는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에 기업들의 기여를 측정하기 위해 2,000개 기업을 선정하고 순위를 매기는 공공 벤치마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중 CHRB는 2017년부터 글로벌 기업들의 전반적인 인권 정책을 평가하고 순위를 매김으로써 기업들이 개인과 공동체의 인권 존중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상호경쟁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HRB 핵심 UNGP 지표』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의 주요 기대 사항의 이행 여부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WBA에서 개발한 CHRB의 핵심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 지표입니다. 특히 CHRB 풀버전과는 다르게 모든 업종에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공통 지표로 개발되었습니다. 해당 지표는 기업의 이행 성과(Performance)가 아닌, 주로 절차(Process)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수 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풀버전 CHRB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평가 지표는 『A. 거버넌스 및 정책 약속』, 『B. 인권 존중의 내재화 및 인권실사』 그리고 『C. 구제 및 고충처리 장치』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A와 C 영역은 각 3개의 세부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B 영역은 6개의 세부 지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세부 지표는 점수 1과 점수 2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1점씩 총 2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세부 지표를 일부 충족할 경우 0.5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표의 평가는 풀버전 CHRB와 마찬가지로 기업 웹사이트, 재무 및 비재무 보고 또는 기타 공시된 문서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조사 시작 시점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발행된 자료만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한국어 자료만을 인용하였습니다.

평가 지표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휴먼아시아 아시아 기업과 인권센터에서 번역한 『기업 인권 벤치마크 평가 방법 핵심 UNGP 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1. CHRB 핵심 UNGP 지표

지표	표제
A. 거버넌스 및 정책 약속	
A.1.1	인권 존중에 대한 약속
A.1.2.a	노동자의 인권 존중에 대한 약속: 직장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
A.1.4	구제 약속
B. 인권 존중의 내재화 및 인권실사	
B.1.1	매일매일의 인권 기능에 대한 책임과 자원
B.2.1	인권 위험 및 영향 식별
B.2.2	인권 위험 및 영향 평가
B.2.3	인권 위험 및 영향 평가 통합 및 조치
B.2.4	인권 위험 및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효과 추적
B.2.5	인권 영향에 대한 소통
C. 구제 및 고충처리 장치	
C.1	노동자를 위한 고충처리 장치
C.2	외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한 고충처리 장치
C.7	부정적 영향의 구제

5. 평가 과정

휴먼아시아의 아시아 기업과 인권센터 연구팀은 평가 대상으로 12 개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2022 년도 기준 자산 상위 10 대 그룹의 주요 계열사와 매출액 상위 10 개 기업 중 업종을 고려하여 10 개사를, 공기업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현황』 기준 수입 및 지출 상위 2 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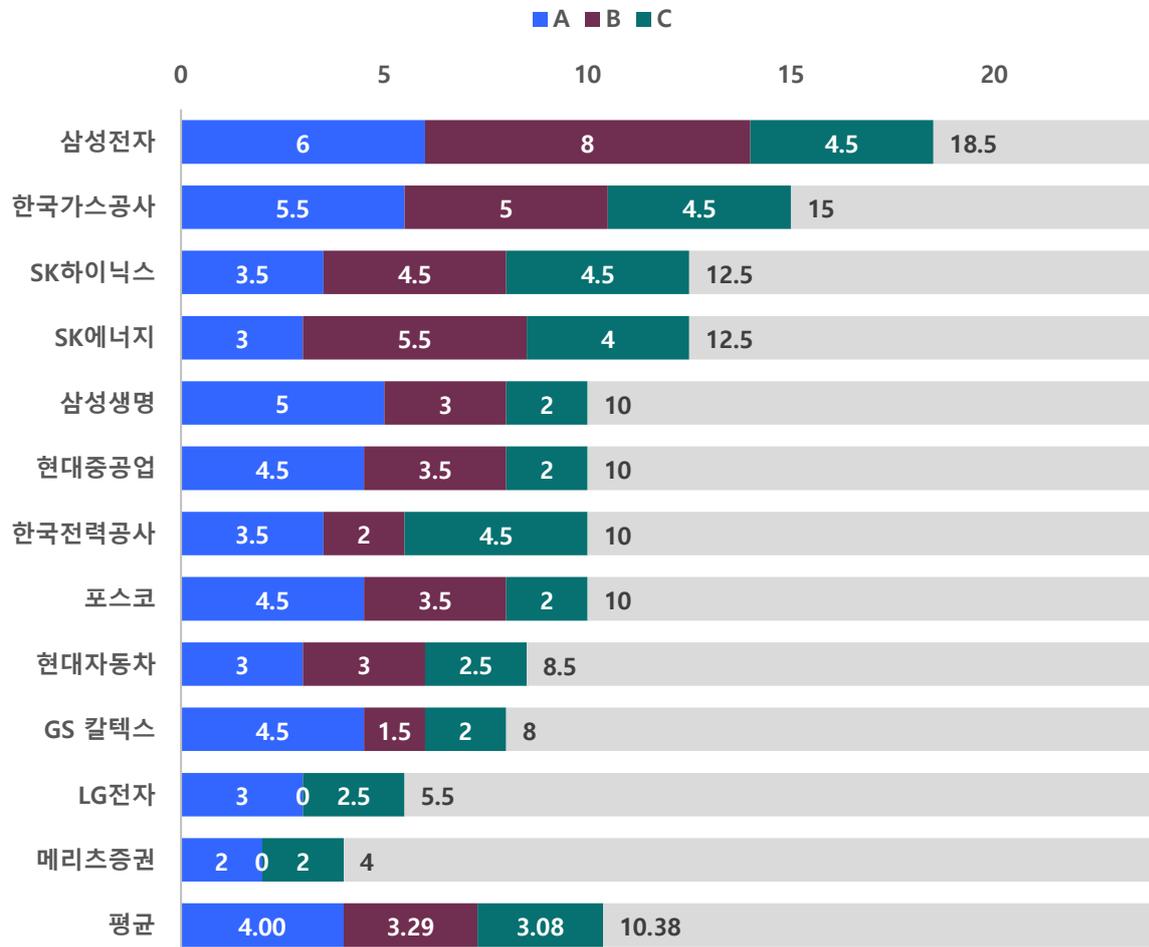
연구팀은 대상 기업에 평가 진행 관련 공문을 발송한 이후 공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초기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초기 평가 이후,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각 기업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과정 이후 추가적인 자료 수집을 통한 최종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최종 평가 결과는 발표 이전 각 기업에 회람하였습니다.

그림 2. CHRB 핵심 UNGP 지표 평가 과정



6. 평가 결과 분석

(1) 총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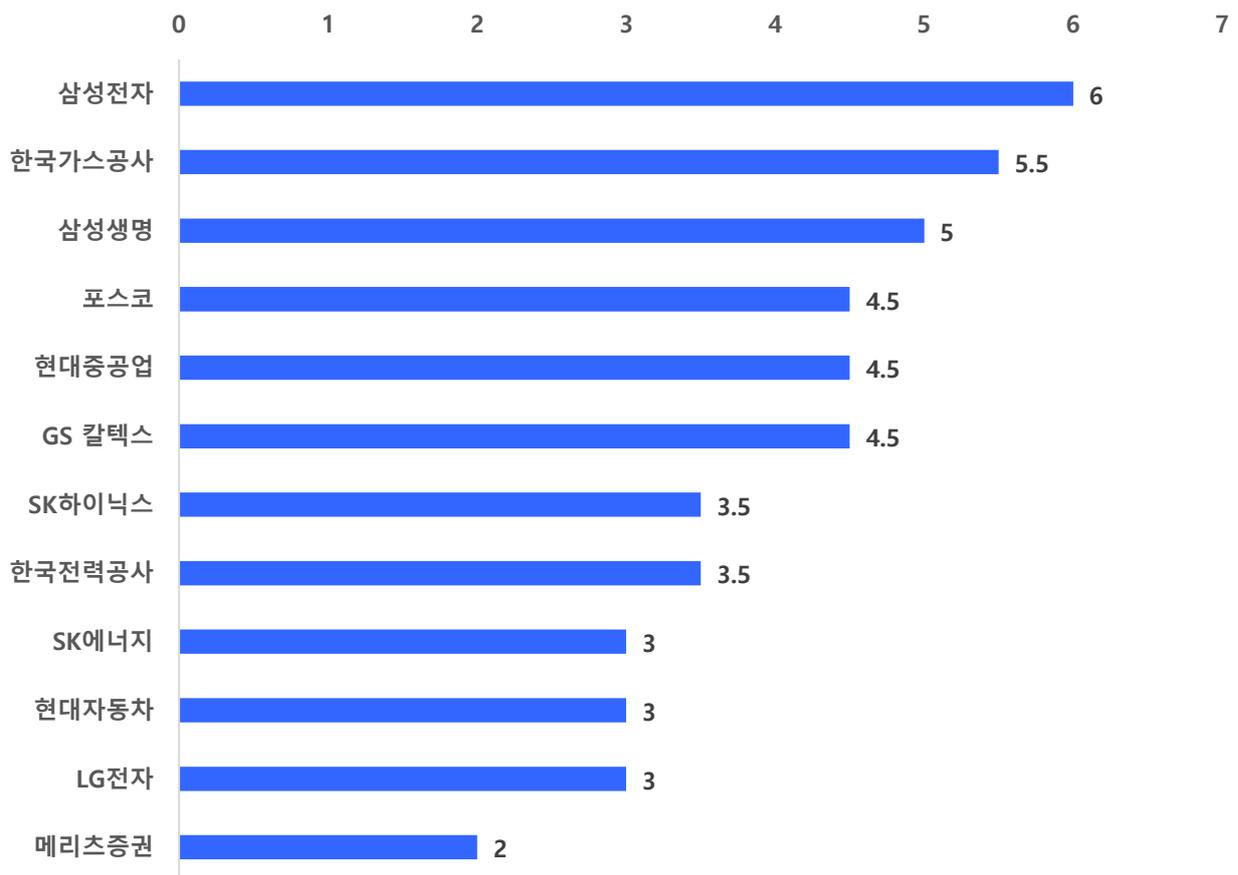
평가 대상 12 개사 중 총점(24 점 기준) 상위 4 개사는 삼성전자(18.5 점), 한국가스공사(15 점), SK 하이닉스(12.5 점), SK 에너지(12.5 점)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B. 인권 존중 내재화와 인권실사』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업들이 상위 그룹을 형성하였습니다. 다만 상위 그룹 내 기업들 간에도 점수 차이가 다소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동일 또는 유사 업종 내 기업들 간에도 총점의 편차가 큰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 ICT: 삼성전자(18.5 점), SK 하이닉스(12.5 점), LG 전자(5.5 점)
- 금융: 삼성생명(10 점), 메리츠증권(4 점)
- 채굴 및 에너지 산업: 한국가스공사(15 점), SK 에너지(12.5 점), 포스코 (10 점), 한국전력공사(10 점), GS칼텍스(8 점)
- 자동차: 현대자동차(8.5 점)
- 조선: 현대중공업(10 점)

총 12 개사 중 8 개사가 24 점 만점 기준 12 점 이하로 지표 달성율이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다수 기업이 아직 인권실사를 비롯한 인권경영 체계구축과 정책마련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참고로 상위 그룹에 속한 기업들 중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경우 지난 수 년간 WBA 에서 진행한 CHRB 평가 대상 기업이어서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권경영 비교진단을 받아왔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2018 년도부터 인권경영 시범추진 공기업으로 선정되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인권경영을 추진해 왔습니다. SK 에너지가 속한 SK 그룹의 경우 그룹차원에서 인권경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항목별 점수 분석: A. 거버넌스 및 정책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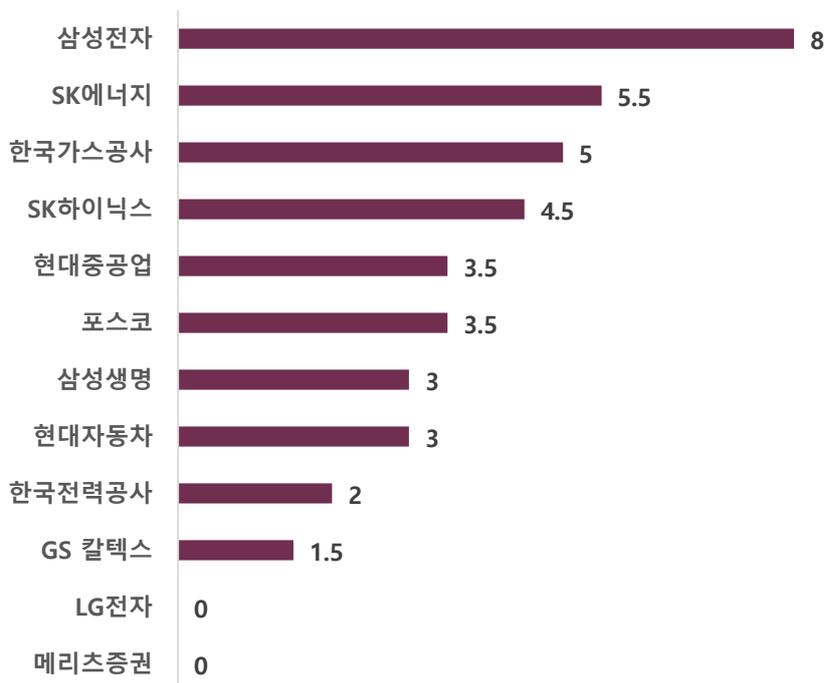
『A. 거버넌스 및 정책약속』의 경우 대부분의 평가 대상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영역이었습니다. 총점 6 점에 평균 4 점으로 66.67%의 달성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회사가 세계인권선언문 또는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등에 따른 권리를 존중할 것을 약속하는 공시된 정책 성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공시된 정책 성명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 또는 다국적 기업을 위한 OECD 지침을 존중할 것을 약속하는지를 묻는 『A.1.1: 인권 존중에 대한 약속』 항목에서는 12 개사 모두 2 점을 획득하였습니다.

『A.1.2.a: 직장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의 경우 대체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지만, 현지 법률이 ILO 협약과 상충할 경우에 관한 정책 내용이 없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A.1.4: 구제 약속』의 경우 회사가 개인, 노동자, 지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거나 그에 기여한 경우 이를 구제할 것을 약속하고 이행 정책 공시 및 접근가능한 구제를 제공하기 위한 사법 또는 비사법적 방식을 통한 협력을 약속하는 성명의 명시를 요구하였으나 다수 기업에서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급업체에 이러한 정책 약속을 이행할 것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거나 협력을 약속한다는 명시가 부재한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3) 항목별 점수 분석: B. 인권 존중 내재화와 인권실사



『B. 인권 존중 내재화와 인권실사』 영역은 이번 평가의 세 가지 평가 영역 중 가장 점수가 낮은 영역으로 평가 대상 12 개사 중 11 개사가 12 점 만점 기준 5 점대 이하의 점수를 나타냈으며 12 개사 전체 평균은 3.29 점으로 27.43%의 달성율에 그쳤습니다.

이번 평가가 공시된 자료를 토대로 절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고, 일반적으로 공개된 시스템과 절차가 실제 정책 이행 및 성과에 선행한다는 측면에서 이 영역의 평가 결과는 인권경영의 핵심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는 인권실사 및 인권정책의 내재화를 위한 체계적인 절차와 정책적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함의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의 인권실사 원칙에 기반하여 본 평가 영역의 세부항목은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을 의미하는 『매일매일의 인권 기능에 대한 책임과 자원』과 『인권 위험 및 영향의 식별, 평가, 통합 및 조치, 대응 조치의 효과 추적, 인권 영향에 대한 소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B.1.1: 매일매일의 인권 기능에 대한 책임과 자원』의 경우 2점 만점에 2점인 곳이 1개사인 반면 0점이 5개사, 0.5점이 2개사로 인권경영 거버넌스에 관한 충분한 명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다수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항목은 『A.1.2.a: 직장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 달성을 선제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기에 이를 이유로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B.2.1: 인권 위험 및 영향 식별』은 2점인 곳이 2개사, 1점이 7개사로 나타나, 다수 평가 대상 기업들이 인권실사를 위한 절차수립 및 체계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급망을 포괄하는 글로벌 관리 시스템과 새로운 국가에서의 사업운영, 새로운 사업 관계, 인권에 영향을 주는 분쟁 등에서 인권경영 시스템의 작동 방식과 식별된 위험요소에 대한 명시는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곳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B.2.2: 인권 위험 및 영향 평가』의 경우 2점인 곳이 1개사, 1.5점이 4개사, 1점이 2개사로 평가 대상 기업의 과반이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공급망에 이를 어떻게 적용하는 지에 대한 부분과 이해관계자 참여 절차의 경우 명시가 부족한 곳이 다수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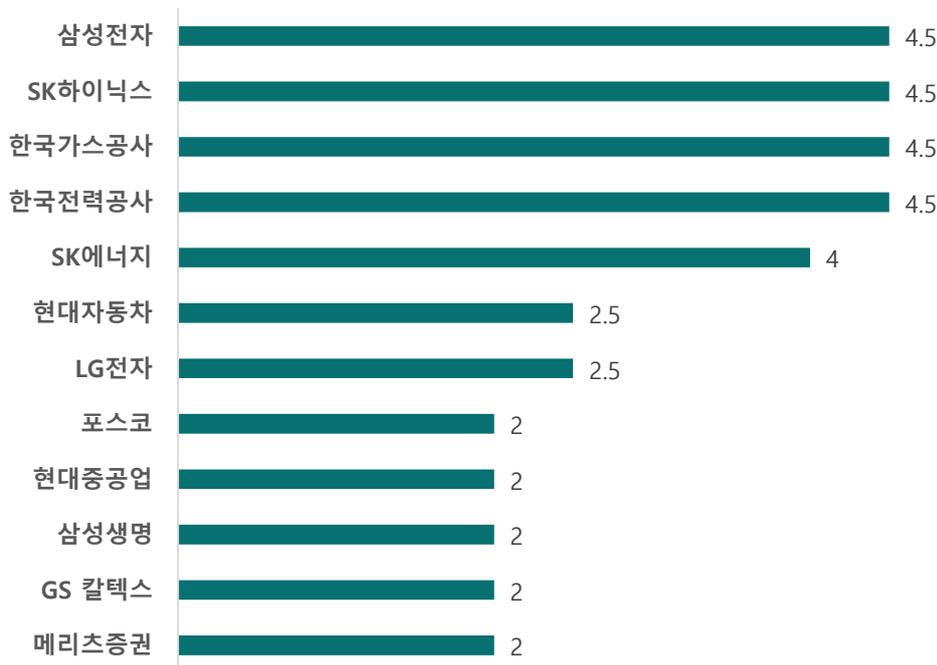
『B.2.3: 인권 위험 및 영향 평가 통합 및 조치』는 0점이 6개사가, 0.5점이 2개사였고, 2점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수의 평가 대상 기업들이 현저한 핵심 인권 문제를 방지, 완화, 또는 구제하기 위한 글로벌 시스템과 이를 어떻게 공급망에 적용하는지 또는 지난 3년동안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업활동과 운영에서 영향 평가의 결과로서 나타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현저한 핵심 인권 문제에 관해서 취했거나 취해질 조치의 사례를 제대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기업에서 핵심 인권 문제에 관한 회사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참여 절차 및 이행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평가 대상 기업 총 12 개사 중 『B.2.4: 인권 위험 및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효과 추적』의 경우 10 개사가 0 점, 1 점을 받은 곳이 2 개사였고, 『B.2.5: 인권 영향에 대한 소통』의 경우 11 개사 0 점, 1 점을 받은 곳이 1 개사로 나타나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인권 위험 및 영향을 식별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책적 조치와 그 조치의 효과 추적 그리고 인권 영향에 대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절차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일련의 상기 프로세스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 지속적인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야 효과적인 인권실사 추진 및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특히 『B.2.3: 인권 위험 및 영향 평가 통합 및 조치』, 『B.2.4: 인권 위험 및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효과 추적』, 『B.2.5: 인권 영향에 대한 소통』의 명시에 관한 점수가 낮다는 것은 일부 기업에서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고는 있으나 아직 인권 실사 프로세스 전체의 연결 구조가 취약하거나 효과적인 이해관계자 참여기반의 절차 및 이행 과정이 부재한 회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평가의 대상기업들이 매출 규모 면에서 한국 경제와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인 만큼, 이들 기업들보다 매출 순위가 낮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경우 인권 존중의 내재화 및 인권실사 준비가 더욱 취약할 것으로 유추됩니다. 따라서 인권과 환경을 핵심적인 두 축으로 하는 공급망 실사법의 국제적 확산을 고려할 때 산업계와 정부의 인식전환과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4) 항목별 점수 분석: C. 구제 및 고충처리 장치



『C. 구제와 고충처리 장치』 영역은 6 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 대상 12 개사 중 5 개사가 4 점대의 점수를 보인 반면, 나머지 7 개사는 2 점대의 점수를 보여 타 영역과 달리 상·하위 두 그룹으로 양분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12 개사 전체 평균은 3.08 점으로 51.39%의 달성율을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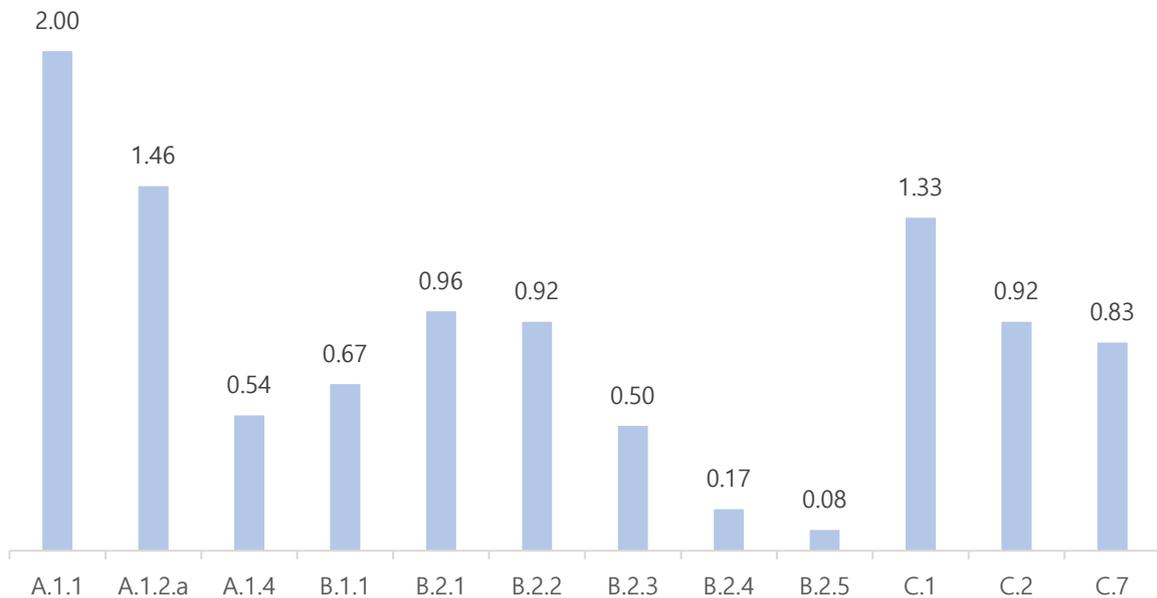
『C.1: 노동자를 위한 고충처리 장치』 항목의 경우 2 점인 곳이 1 개사, 1.5 점이 6 개사, 1 점이 5 개사였으며 0 점인 곳은 한 곳도 없어 기업간 편차는 있으나 이번 평가 대상 12 개사 모두 노동자를 위한 고충처리 장치를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C.2: 외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한 고충처리 장치』 항목의 경우 1.5 점이 3 개사, 1 점이 6 개사, 0.5 점이 1 개사, 0 점인 곳이 2 개사였습니다. 상기 C.1 항목 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것은 특히 모든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접근성 부분과 공급업체의 고충처리 장치 접근성에 관한 점수가 낮은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C.7: 부정적 영향의 구제』 항목의 경우 C.구제 및 고충처리 영역 중 점수가 가장 낮은 항목으로 2 점이 1 개사, 1.5 점이 4 개사, 1 점이 2 개사, 0 점인 곳이 5 개사로 나타났습니다. 다수의 기업이 구제 절차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거나 합의된 구제책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절차, 유사한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및 절차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5) 평가 대상 12개사 세부항목 별 평균 점수 분석

지표 코드	지표명	평균	평균(%)
A.1.1	인권 존중에 대한 약속	2.00	100.00%
A.1.2.a	노동자의 인권 존중에 대한 약속: 직장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	1.46	72.92%
A.1.4	구제 약속	0.54	27.08%
B.1.1	매일매일의 인권 기능에 대한 책임과 자원	0.67	33.33%
B.2.1	인권 위험 및 영향 식별	0.96	47.92%
B.2.2	인권 위험 및 영향 평가	0.92	45.83%
B.2.3	인권 위험 및 영향 평가 통합 및 조치	0.50	25.00%
B.2.4	인권 위험 및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효과 추적	0.17	8.33%
B.2.5	인권 영향에 대한 소통	0.08	4.17%
C.1	노동자를 위한 고충처리 장치	1.33	66.67%
C.2	외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한 고충처리 장치	0.92	45.83%
C.7	부정적 영향의 구제	0.83	41.67%



상기 표와 그래프는 평가 대상 12개사의 3개 평가 영역: 『A. 거버넌스 및 정책약속』, 『B. 인권 존중 내재화와 인권실사』, 『C. 구제와 고충처리 장치』의 세부항목 별 평균 점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2점 만점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A.1.1: 인권 존중에 대한 약속』 항목이 평균 2점을 기록한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인권 영향에 대한 소통』 항목은 평균 0.08점을 나타내 두 지표간 편차가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1.1: 인권 존중에 대한 약속』, 『A.1.2.a 노동자의 인권 존중에 대한 약속: 직장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이 각각 평균 2점과 1.46점을 나타낸 반면, 『A.1.4: 구제 약속』은 평균 0.54점을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B. 인권 존중 내재화와 인권실사』 영역에서 『B.1.1: 매일매일의 인권 기능에 대한 책임과 자원』 0.67점, 『B.2.1: 인권 위험 및 영향 식별』 0.96점, 『B.2.2: 인권 위험 및 영향 평가』 0.92점, 『B.2.3: 인권 위험 및 영향 평가 통합 및 조치』 0.5점, 『B.2.4: 인권 위험 및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효과 추적』 0.17점, 『B.2.5: 인권 영향에 대한 소통』 0.08점의 평균점을 보였습니다.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였을 때, 특히 『B.2.3: 인권 위험 및 영향 평가 통합 및 조치』, 『B.2.4: 인권 위험 및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효과 추적』, 『B.2.5: 인권 영향에 대한 소통』은 각각 25%, 8.33%, 4.17%의 달성율을 보여 이 항목들의 절차 마련이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상기 평가 결과는 대부분의 평가 대상 기업에서 인권 존중에 대한 선언적 약속은 이루어졌지만, 실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과 세부적인 인권실사 및 구제절차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평가 대상 기업들이 『B.2.1: 인권 위험 및 영향 식별』 47.92%과 『B.2.2: 인권 위험 및 영향 평가』 45.83%의 달성율을 보인 반면, 인권 위험 및 영향 평가의 후속 프로세스인 『통합 및 조치, 효과추적, 소통』 항목의 달성율은 각각 25%, 8.33%, 4.17%에 그쳐, 평가 대상 기업의 절반 정도가 인권 위험 및 영향의 식별을 위한 체계와 인권영향평가를 도입은 하고 있지만, 인권영향평가 이후 이해관계자 참여 기반의 정책통합과 조치, 정책 시행 후의 효과 추적 및 개선, 인권영향에 대한 소통 절차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의 인권실사 원칙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에 비추어 볼 때 효과적인 인권실사를 위해 프로세스 상의 이러한 미비점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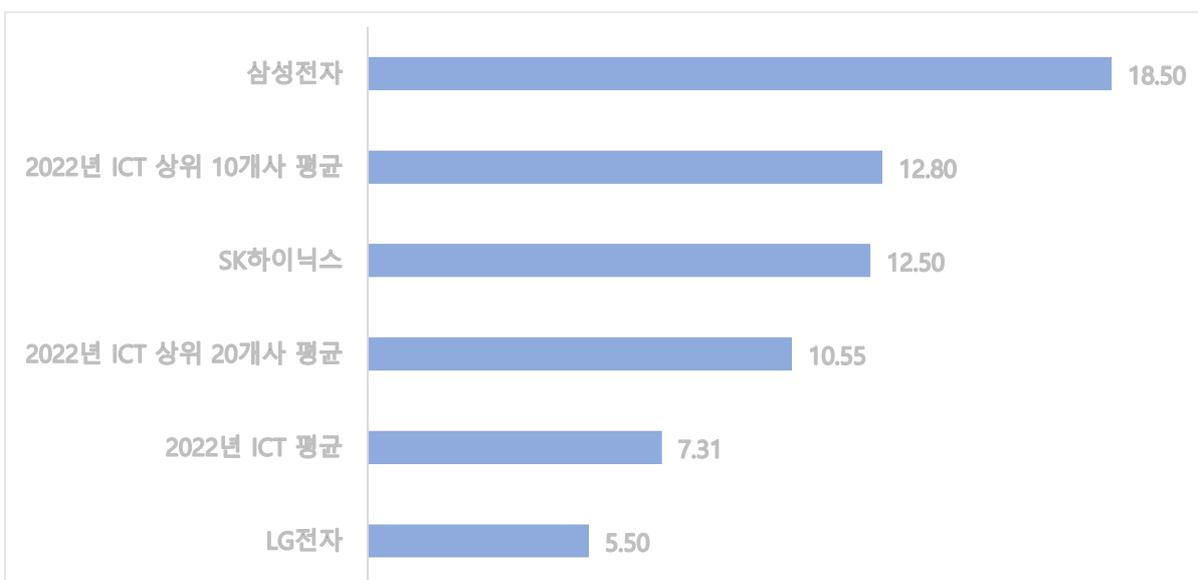
『C. 구제와 고충처리 장치』 영역의 경우 『C.1: 노동자를 위한 고충처리 장치』 항목이 1.33 점으로 66.67%의 달성율을 보인 반면, 『C.2: 외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한 고충처리 장치』가 0.92 점으로 45.83%, 『C.7: 부정적 영향의 구제』이 0.83 점 41.67%의 달성율에 그쳐, 평가 대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구제 장치와 관련하여 모든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접근성과 공급업체의 고충처리 장치 접근성에 관한 명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아직 다수의 기업이 구제 절차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거나 합의된 구제책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절차, 유사한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및 절차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업종별 2022&2023년 CHRБ 평가와의 비교분석: 『CHRБ 핵심 UNGP지표』 기준

아래의 표와 그래프는 『2022 년과 2023 년 CHRБ 평가』 결과 중 『ICT, 자동차, 채굴산업』 업종에서 『CHRБ 핵심 UNGP 지표』 해당 결과만 추출한 뒤 총점 상위 10 개사, 상위 20 개사, 업종별 전체 평가 대상 기업들의 총점 평균을 산출하여 『2024 년도 국내 기업 평가』 결과와 비교 분석한 것입니다. 평가의 시차와 평가 범주의 차이에 따른 공시된 절차 자료의 변동으로 인해 동일한 시점에 일시에 진행된 평가 결과에 비해 정확한 상호 비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기업의 인권경영 현황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의 핵심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한 『CHRБ 핵심 UNGP 지표』 기준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인권경영 현황과 비교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분석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ICT 업종

회사명	총점	A 지표: 거버넌스 및 정책 약속	B 지표: 인권존중의 내재화 및 인권실사	C 지표: 구제 및 고충처리 장치
삼성전자	18.50	6	8	4.5
2022 년 ICT 산업 상위 10 개사 평균	12.80	3.90	4.50	4.40
SK 하이닉스	12.50	3.5	4.5	4.5
2022 년 ICT 산업 상위 20 개사 평균	10.55	2.95	3.55	4.05
2022 년 ICT 산업 평균 (43 개사)	7.31	2.22	2.06	3.03
LG 전자	5.50	3	0	2.5



이번 평가에서 평가 대상 12 개 기업 중 ICT 업종에 속한 기업은 상기 표와 같이 3 개사였으며, 2022년 CHRB 평가 결과를 토대로한 ICT업종의 『CHRB 핵심 UNGP 지표』 총점 기준 상위 10개사 평균인 12.8 점보다 상위에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 1 개사, 상위 10 개사와 상위 20 개사의 총점 평균인 12.8 점과 10.55 점 사이에 있는 기업이 SK 하이닉스 1 개사였습니다. 2022년 CHRB 평가 ICT 업종 대상 기업은 총 43 개사였고 총점 평균은 7.31 점이었는데 평가 대상 국내 기업 중 LG 전자는 업종 평균 보다 아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전자가 ICT 업종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들이라는 측면에서 세 기업간의 점수 편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은 그 함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경우 지난 수년간 WBA 에서 진행한 CHRB 평가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어 국제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인권경영 평가를 받으면서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한 진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에 비해 모니터링 대상에 속하지 않았던 LG 전자의 경우 『CHRB 핵심 UNGP 지표』 총점 기준으로 2022년 CHRB 평가 ICT 업종 대상 기업 총 43 개사의 총점 평균인 7.31 점보다 낮은 5.5 점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특히 『B. 인권 존중 내재화와 인권실사』 영역에서 0 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공급망 실사법이 확산하고 있는 최근 국제 동향을 고려할 때 다른 국내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 참고:

- 2022년 CHRB 평가 결과를 토대로한 ICT업종 『CHRB 핵심 UNGP 지표』 총점 기준 상위 10개사: Hewlett Packard Enterprise, Corning, Samsung Electronics, Microsoft, HP, Dell, Canon, Cisco, Ericsson, Western Digi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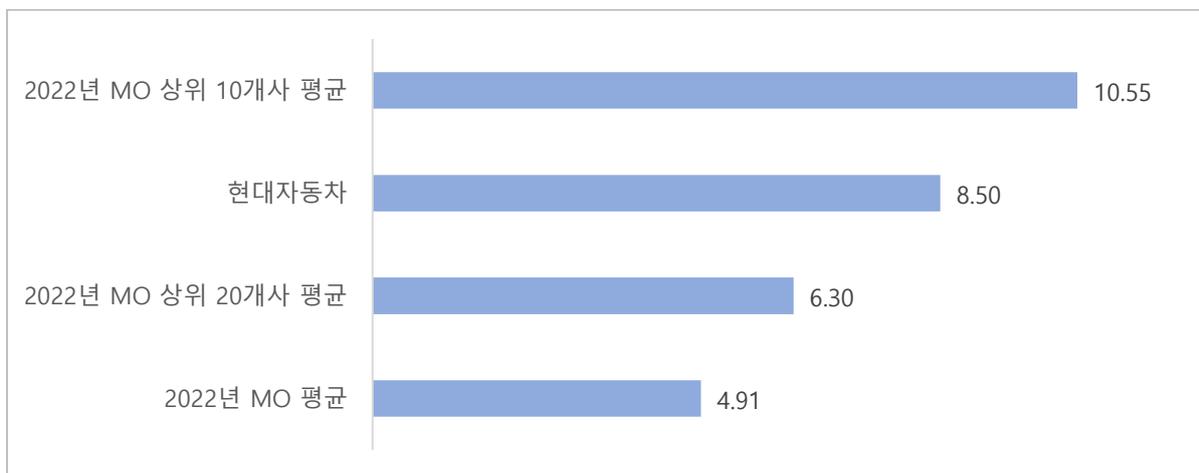
- 2022년 CHRB 평가 결과를 토대로한 ICT업종 『CHRB 핵심 UNGP 지표』 총점 기준 상위 20개사: 상위 10 개사 + TSMC, Intel, Walmart, Qualcomm, Murata Manufacturing, Apple, Sony, Hitachi, Nokia, NXP Semiconductors,

- 2022년 CHRB 평가 대상 ICT업종 43 개사

상위 20 개사 + Tokyo Electron, Nvidia, TE Connectivity, Panasonic Corporation, SK Hynix, Infineon Technologies AG, Applied Materials, Keyence Corporation, Amphenol, Nintendo, Skyworks Solutions, Kyocera Corporation, Hon Hai Precision Industry Co., Ltd. (Foxconn), Amazon, Broadcom, ASML, Lam Research, Micron Technology, Microchip Technology, BOE Technology Group, Texas Instruments, Largan Precision, Analog Devices

자동차 업종

회사명	총점	A 지표: 거버넌스 및 정책 약속	B 지표: 인권존중의 내재화 및 인권실사	C 지표: 구제 및 고충처리 장치
2022년 자동차산업 상위 10개사 평균	10.55	3.20	4.45	2.9
현대자동차	8.50	3	3	2.5
2022년 자동차산업 상위 20개사 평균	6.30	2.10	2.18	2.18
2022년 자동차산업 평균 (29개사)	4.91	1.62	1.74	1.55



자동차 업종의 경우 이번 국내 평가 대상 기업 중 1개사가 이 업종에 속했습니다. 2022년 CHRБ 평가 결과를 토대로 현대자동차는 『CHRБ 핵심 UNGP 지표』 총점 기준 상위 10개사 평균인 10.55 점과 상위 20개사 총점 평균인 6.30 점 사이인 8.5 점을 나타내었습니다.

* 참고:

- 2022년 CHRБ 평가 결과를 토대로한 자동차 업종 『CHRБ 핵심 UNGP 지표』 총점 기준 상위 10개사:

General Motors Corporation (GM), Renault, Mercedes-Benz Group, BMW, Ford, Volkswagen, Stellantis, Subaru, Toyota Motor Corporation, Mahindra and Mahindra

- 2022년 CHRБ 평가 결과를 토대로한 자동차 업종 『CHRБ 핵심 UNGP 지표』 총점 기준 상위 20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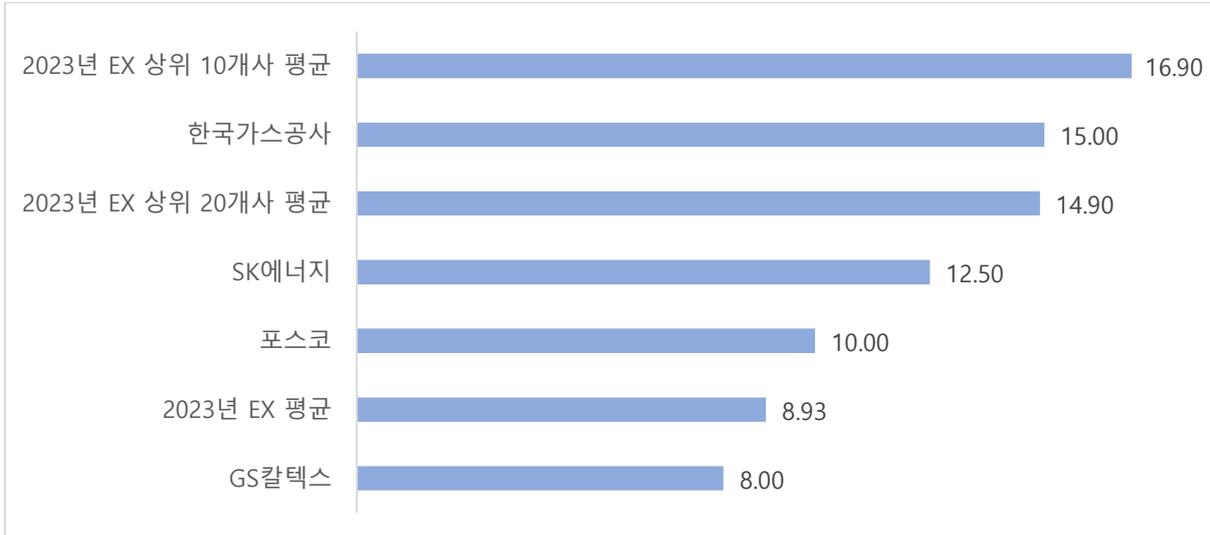
상위 10개사 + Kia Motors Corporation, Nissan Motor Company, Honda Motor Company, Hyundai Motor Company, Geely, Tesla, Mitsubishi Motors Corporation, Tata Motors, Mazda Motor Corporation, Guangzhou Automobile Group

- 2022 년 CHRБ 평가 대상 자동차 업종 29 개사

상위 20 개사 + Suzuki Motor Corporation, BYD, Changan Automobile, Anhui Jianghuai Automobile Group, Beijing Automotive Group (BAIC), China FAW Group, Dongfeng Motor Group, Great Wall Motor Company, SAIC Motor

채굴 업종

회사명	총점	A 지표: 거버넌스 및 정책 약속	B 지표: 인권존중의 내재화 및 인권실사	C 지표: 구제 및 고충처리 장치
2023 년 채굴산업 상위 10 개사 평균	16.90	4.75	7.90	4.25
한국가스공사	15.00	5.5	5	4.5
2023 년 채굴산업 상위 20 개사 평균	14.90	4.40	6.30	4.20
SK 에너지	12.50	3	5.5	4
포스코	10.00	4.5	3.5	2
2023 년 채굴산업 평균 (55 개사)	8.93	2.83	3.15	2.95
GS 칼텍스	8	4.5	1.5	2



이번 평가에서 채굴 관련 업종에 속한 국내 기업은 상기 표와 같이 4 개사였습니다. 2023 년 CHR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채굴 관련 업종 『CHRБ 핵심 UNGP 지표』 총점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한국가스공사 1 개사만 상위 10 개사 평균 총점인 16.9 점과 상위 20 개사 평균 총점인 14.9 점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 에너지, 포스코 2 개사는 상위 20 개사 평균 총점인 14.9 점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어 글로벌 상위 기업들과 비교할 때 국제 공급망 속에서 인권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2018 년도부터 인권경영 시범추진 공기업으로 선정되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도입하고 외부전문가들과 협력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비해 GS 칼텍스의 경우 『CHRБ 핵심 UNGP 지표』 총점 기준으로 2022 년 CHRБ 평가 ICT 업종 대상 기업 총 43 개사의 총점 평균인 8.93 점보다 낮은 8 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A. 거버넌스와 정책 약속』 부문에서는 평균을 웃도는 4.5 점(6 점만점)을 기록했으나 『B. 인권 존중 내재화와 인권실사』 영역과 『C. 구제 및 고충처리 장치』 영역에서 각각 1.5 점(12 점만점)과 2 점(6 점만점)을 받아 정책 등 선언적인 약속에 비해 체계의 구축과 세부적인 절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참고:

- 2023 년 CHRБ 평가 결과를 토대로한 채굴업종 『CHRБ 핵심 UNGP 지표』 총점 기준 상위 10 개사: Repsol, Equinor, Freeport-McMoRan, Eni, BP, Rio Tinto, Barrick Gold, Newmont, Anglo American, OM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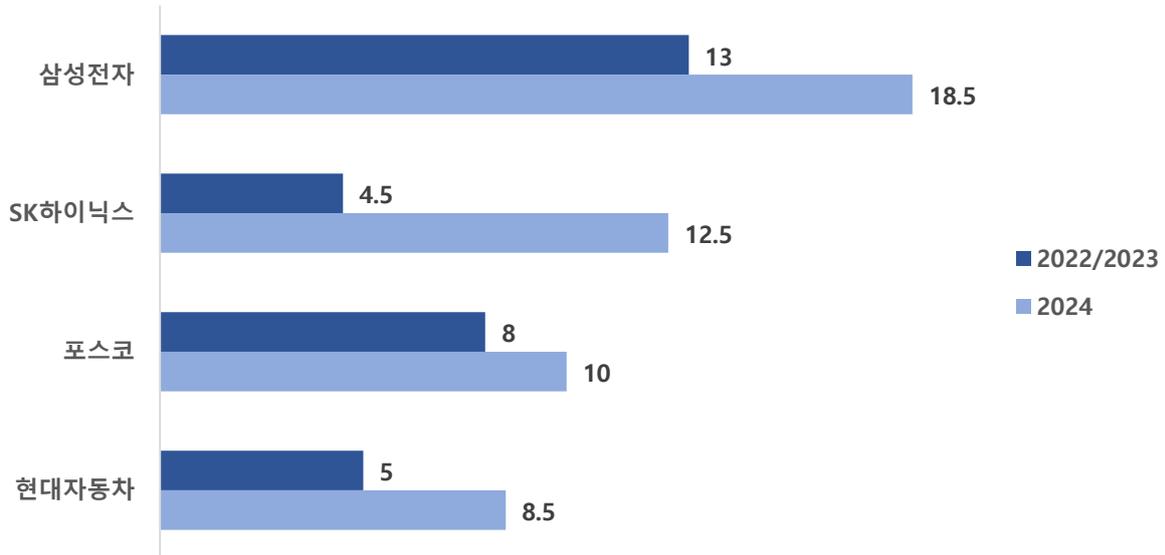
- 2023 년 CHRБ 평가 결과를 토대로한 채굴업종 『CHRБ 핵심 UNGP 지표』 총점 기준 상위 20 개사: 상위 10 개사 + Holcim, Glencore, PTT, Grupo Mexico, Shell PLC, Vale, Ecopetrol, Teck Resources, Chevron, TotalEnergies

- 2023 년 CHRБ 평가 대상 채굴업종 55 개사

상위 20 개사 + BHP Group, Sasol, ENEOS Holdings, Petrobras, ArcelorMittal, POSCO, Nornickel, Heidelberg Materials, INPEX, Siam Cement (SCG), ConocoPhillips, NLMK Group, ExxonMobil, Rosneft, UltraTech Cement, Woodside Petroleum, Severstal, Occidental Petroleum, Lukoil, Tatneft, Oil and Natural Gas Corporation, EOG Resources, Saudi Aramco, Canadian Natural Resources, Suncor Energy, Phillips 66, Nippon Steel Corporation, Gazprom, Devon Energy Corp, Marathon Oil, China National Offshore Oil, Surgutneftegaz, China Petroleum and Chemical Corporation Limited (Sinopec), China Energy Investment Group (CHN Energy), Anhui Conch Cement

(7) 동일 국내 기업 2022&2023년 및 2024년 결과 비교분석

아래의 그래프는 2022 년과 2023 년 CHRБ 평가 대상 기업 중, 이번 2024 년도 평가에서도 평가 대상이 된 국내 기업들의 『CHRБ 핵심 UNGP 지표』 기준 결과만을 추출한 뒤 비교 분석한 것입니다.



평가의 시차와 평가 범주의 차이에 따른 공시된 절차 자료의 변동으로 인해 『CHRБ 핵심 UNGP 지표』를 기준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포스코 4 사 모두에서 점수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경우 CHRБ 평가 이후 인권경영 보고서 발간,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해당 절차에 대한 공시 강화, 인권원칙제정, 인권경영가이드라인의 제정 등을 통해 절차적 보안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산출 결과의 변화는 CHRБ 와 같은 국제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기업과 인권 진단 지표의 적용이 초연결망에 의해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인권경영 현황에 대한 글로벌 기업간 상호 비교 분석을 통해 인권경영의 변화와 발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함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맺음말

본 평가는 인권과 환경을 두 가지 핵심 축으로 하는 공급망 실사법이 확산하고 있는 현 시점에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의 인권 경영 현황을 진단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현황과 비교해 봄으로써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국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인권경영 체계를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초석을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본 평가의 함의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이 인권친화적 경영문화 확립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자 참여 기반의 실질적인 인권실사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인권경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휴먼아시아의 아시아 기업과 인권센터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첫 번째 평가를 토대로 한국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인권친화적 경영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대상 기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구의 한계

본 평가의 결과는 공시된 국문 자료의 절차(Process)를 중심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이행(Performance)의 관점에서 평가 대상 기업의 인권경영 수준을 보여 주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의 마련과 체계의 구축이 실제로 인권경영을 이행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의 업종별 인권경영 현황 비교를 위한 데이터의 경우 『2022 년과 2023 년 CHRB 평가』 결과 중 『ICT, 자동차, 채굴산업』 업종에서 『CHRB 핵심 UNGP 지표』 해당 결과만 추출한 『2024 년도 국내 기업 평가』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평가의 시차와 평가 범주의 차이에 따른 공시된 절차 자료의 변동으로 동일한 시점에 일시에 진행된 평가 결과에 비해 정확한 상호 비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점을 감안하더라도 본 연구는 국내 기업의 인권경영 현황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의 핵심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한 『CHRB 핵심 UNGP 지표』 기준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인권경영 현황과 비교해서 가능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여 연구진

본 평가는 사단법인 휴먼아시아의 기업과 인권 전문연구진들이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평가에는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 교수(대표), 이상수 서강대 법전대 교수(아시아 기업과 인권센터 상임이사), 김민우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아시아 기업과 인권센터장), 노영린, 조현진 연구원 및 리서치 팀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COPYRIGHT

본 보고서, 평가 채점표, 및 평가 데이터는 사단법인 휴먼아시아의 저작물이며 관련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해당 자료를 사전허가없이 무단 복사, 배포, 전재, 판매, 개작, AI 학습 및 활용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면책조항

본 보고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회계, 세무, 법률, 투자 등 전문적 사항에 대한 당 법인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보고서는 특정 또는 일반적인 투자 목적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전문적인 회계 및 세무 자문 혹은 기타 유사한 자문과 동등한 중요도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의 내용을 활용할 시 반드시 적합성과 적정성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등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에 기재된 평가 결과는 World Benchmark Alliance 에서 제작한 『CHRB Core UNGP Indicators』에 따라 당 법인에서 진행한 평가의 결과입니다. 해당 평가는 기업 인권경영을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이지 절대적인 성과 지표가 아닙니다. 당 법인은 평가 대상 기업이 공개하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그 정보의 신뢰성을 전제하고 해당 평가와 보고서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당 법인은 해당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포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 시점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향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휴먼아시아 - 아시아 기업과 인권 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210 용기빌딩 4층 +82-2-723-1673 chrb@humanasia.org